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광주시 남구 ‘어린이나라 어린이집’(원장 최봉훈) 원생 50여명이 11일 낮 남구 봉선동 ‘인애 시니어 W클럽’을 찾아 노인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가졌다. 산타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히트 모양을 그리며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료기록 2년간 압수... 병원들 반발

광주 8곳 환자 증명서 발급 못받고 진료 차질

북부경찰 “보험사기 수사량 방대해 지연”

경찰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지역 병·의원 8곳에 진료기록을 2년 동안 압수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환자와 병원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진료기록이 압수되는 바람에 환자들이 진료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데다, 병원측도 환자들의 진료기록이 없어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해 1월 보험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병·의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병원은 북구 A병원을 비롯, 모두 광주지역 병·의원이다.

경찰은 당시 이들 병·의원의 2005년, 2006년 2년 동안의 진료기록카드와 ▲컴퓨터 기록 ▲입·퇴원 증명서 ▲자동차보험 관리대장서류 ▲환자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했다.

특히 진료기록카드는 병·의원별로 많게는 2천400여장, 적게는 100여장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압수품은 현재 북부서 관내 치안센터에 보관중이다.

진료기록 등 압수물이 장기간 압류됨에 따라 해당 병·의원은 보험 가입·청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환자에게 발급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11일 A병원을 찾은 이모(34)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치료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서류가 경찰서에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며 “당장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화나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해당 병·의원의 경찰에 대한 불만도 높다. 이들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두 세 차례 조사를 벌인 이후 뜬금없이 9월 이후 다시 경찰조사사를 받았다”며 “경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진료정보가 모두 담긴 진료기록을 2년 동안이나 돌려주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광주 B병원 관계자도 “경찰의 편의주의 수사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으로 찍혀 병원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보험사기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진행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수사량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했고 검찰

의 지휘도 받았다”며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 조무사들까지 임시 고용해 수 천 개에 달하는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으며,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께 택시 운전사와 병·의원 관계자 등 50여명을 의료비 부당청구 등 혐의로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47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에 내정된 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측근인사차 방문한 정삼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뇌물이며 국민과 국세청 조직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연습스

‘거짓’의 말로

‘이정섭 군수 사건’ 허위 진술 9명 기소

검찰이 이정섭 담양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9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1일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K사 전 대표 김모(63)씨 등 9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이 군수의 친인척은 물론, 일반 가정주부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이정섭 담양 군수 재판과정에서 증언이 이 군수의 친인척은 물론, 일반 가정주부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이정섭 담양 군수 재판과정에서 증언이 이 군수의 친인척은 물론, 일반 가정주부도 포함됐다.

특히 판공사 자재납품 업자

인 김씨의 경우 계약 편의 대가로 2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으면 서도 법정에서는 “뇌물이 아닌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군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정에서 공무원 뇌물사건을 둘러싸고 위증이 난무하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판결문과 공판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위증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

연말정산 가짜 기부 영수증 잇단 엄벌

연말정산을 앞두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다가는 큰 코 다친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잇달아 엄벌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할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모두 57억원이 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가 10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할 주지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지인들에게도 ‘선심’을 쓴 30대 회사원 박모씨도 포탈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창원지검은 절에서 발급 받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천880명을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중 150만~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1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정 환급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3천760여명은 자진납부토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연습스

나원침 (7676)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신청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반지 안빠져 119 긴급 출동

○여고생이 자신의 손가락에 링 반지를 끼었다가 빠지지 않는 바람에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1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2년 이모(17·서구 농성동)양은 전날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병원 앞길에서 “왼손 약지에 낀 링 반지가 빠지지 않는다”며 119 구급대에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는 것.

○119 구급대원들은 이양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20cm 길이의 반지 절단기를 이용, 2분 만에 링 반지를 제거.

○이양은 “반지를 제거하려고 상무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측에서 ‘절단할 수 없다’고 말해 돌아섰다가 귀가 도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 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친절하게 빠워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함.

/이종형 기자 golee@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호박 나이트 광주첨단 · 폭스존열

12월 12(금) 설운도

OPEN 통

부킹천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별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